

민천주보

제2728호

2022년 6월 26일 |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보물 찾기 <주안3동 성당>

<부활하신 예수님>, 1992, 240x300cm, 대성전 십자가

입당송 |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 1열왕 19,16L.19-21

화답송 | 시편 16(15),1-2ㄱ과 5.7-8.9-10.11(◎ 5ㄱ 참조)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

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갈라 5,1.13-18

복음 환호송 | 1사무 3,9; 요한 6,68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 루카 9,51-62

영성체송 |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e-메일 비우기

받아들임과 선택

얼마 전,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힘듦이 있었지만, 어느덧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위로가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지만, 하느님을 믿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지내다 보니 저에게 주어진 상황은 삶이 되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현재 본당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혼자 식사를 준비하며 차려 먹고 있는데, 이러한 저에게 본당 신자들은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실 만한 반찬들을 챙겨주십니다. 저는 그 반찬들을 버리지 않고 잘 먹어야 하기에, 식사 때가 되면 반찬 통 개수를 줄이는 재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떤 반찬을 먹을지 선택합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어떤 반찬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밥 먹는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이는 또 하나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일상의 작은 삶의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 안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늘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왔기에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시며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다른 마을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다양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

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불림받아 살아가는 상황은 그리 현세적인 행복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루카 9,58)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느낍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

부르심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는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부르심에 주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안에서 열려 있는 선택에서 그 의미를 이루며 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소원 성취 혹은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2독서의 말씀처럼 부르심 안에서 얻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받아들임과 선택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오늘 특별히 교황 주일을 맞아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고 자유롭게 해방된 말씀으로 신앙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현정민 바오로 신부
내가 본당 주임

생태 영성적 에코 웨딩

생태 영성적 에코 웨딩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 생태(Eco), 영성의 개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립됐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연(自然, Nature)’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① 천연(天然) 그대로의 상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②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지질적 환경’ 등으로 정의됩니다. 즉, 자연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무언가에 의해서 탄생하며 형성된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태(生態)’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하여 가는 상태(mode of life)”이며,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그것들과의 관계 구조를 뜻합니다. 영어 ‘Eco’는 생태학(Ecology)의 그리스어 어미의 ‘살 곳’,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οικος’(오이코스)에서 유래 되었는데,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지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의 집이며, 인간과 자연은 같은 피조물이고 서로 의존하고 생활해야 하는 공동의 운명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사전적 의미로 “신령한 품성(divinity)”이라고 정의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영, 입김, 숨결을 의미하는 단어로 희랍어 ‘프네우마(πνευμα)’를 썼습니다. 이는 4, 5세기쯤 그리스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단어의 변형과 파생을 거쳐 현재는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과 호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Eco), 영성의 사전적 의미와 어원을 통해서 ‘자연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났으며, 생태는 이런 자연에서 생겨난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자리로, 하느님의 숨결과 사랑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 생명이 존재함’이 생태 영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함께 살아갑니다. 인간과 하느님 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서로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 함께하게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과 세계관의 특징을 보면 생태 영성이라는 단어가 더 쉽게 이해됩니다. 첫째, 그들은 자연에 대해서 더없이 우호적이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풀과 사슴과 나무, 돌들도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풀 한 포기라도 그냥 뽑아서 버리지 않으며 재미로 무엇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과 우주 자연과의 일체감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동·식물을 음식으로 채집하거나 수렵해서 나눌 때도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동물은 늙고 약한 것부터 취했습니다. 강한 것은 계속 번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대지의 혼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자연의 영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초기 인류 문화를 기억하고 생태 윤리를 바탕으로 실천하고 행동하자는 것이 생태 영성적 관점에서의 에코 웨딩이라고 봅니다. 이는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의례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에코 웨딩이 생태 영성적 교육과 실천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 안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생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소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시작을 인간만의 생명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생태적인 모든 생명에 대해서 넓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 에코 웨딩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임 헬레나 · 웨딩플래너

역사라는 이름의 학교

교회 역사의 커다란 전환으로 기억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가 한창이던 1962년 3월 10일, 요한 23세 교황님은 인천교구 설립을 발표하셨습니다. '선교지'였던 인천대목구가 정식 '교구'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58년 메리놀 외방선교회 소속 기본스(노봉) 신부님이 감목대리구장으로 파견되어 인천 지역교회의 밑돌을 놓던 때부터 5년, 같은 회 소속 맥노튼 신부님(故 나길모 굴리엘모 주교)이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순간(1961년 6월 6일)부터 불과 9개월 만의 일입니다. 파격적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공의회를 소집한 교황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공의회에 인천 또한 어엿한 '지역 교회'로 초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태어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구장 나길모 주교님은 실제로 한국천주교회 주교님 중 공의회 모든 회기를 모두 참석한 몇 안 되는 '교부' 중 한 분입니다.

2021년은 인천교구 설정 6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간 우리의 지난 시간을 '교구사'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여러 행사를 통해 기념해 왔습니다만 정작 우리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어 성장해 왔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만한 기회는 적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60주년이 한 해 동안만의 기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더해졌습니다. 2020년 답동 주교좌 성당 옆 옛 주교관을 역사관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지난해 3월 19일 개관했습니다. 3층 7개 전시실로 구성된 역사관은 1~3실은 교구 설정 이전의 역사를, 4~6실은 공의회

와 함께 시작된 교구가 어떻게 그 정신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유물의 '보존'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유물이 '남겨진 물건'이 아닌 '유산'이 되려면 생생한 이야기로 거듭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역사관은 어제를 밑거름 삼아 오늘과 내일을 성찰할 살아있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해설할 인재들이 절실했습니다. 1년의 교육을 통해 2021년 봄 인천교구 문화유산 해설사 38분이 배출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인천교구 역사관은 번듯하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여느 박물관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천교구 역사관은 교구민 모두의 '학교'이고자 합니다. 그것도 어제의 발자취에서 오늘의 지혜를 얻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살아있는' 학교 말입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역사관 메인 전시실 앞의 인천교구 문화유산 해설사들>



· 인천교회사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

인천교구 역사관

개관: 매주 화, 금, 토, 주일

시간: 오전 10시~17시(휴식 12시~13시)

문의: 032-765-6931

예약: 검색창에 '인천교구 역사관' 또는 QR코드

- 단체 해설을 원하신다면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교구 역사관 예약

교구 행사

교구 사제 연례 연수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교구 성직자국(=국장 민영환 토마스 모어 신부)의 주관으로 22년도 교구 사제 연례 연수가 진행되었다. 연수에 앞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는 “강의와 다양한 자체 연수에 모든 사제가 참여하여 서로 친목하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주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13일에는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가 진행한 “중독에 대한 사목적 이해와 대책”이라는 주제의 비대면 강의에 192명의 사제가 참여하였고, 14~15일은 지구별·기관별 자체 연수와 요리, 목공, 한지공예 연수가 진행되었다. 오는 28~30일에는 로고테라피 연수, 9월에는 “Who am I?”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구 행사

제13회 교구 전례꽃꽂이 전시회



14일(화)부터 15일(수)까지 교구 성소국(=국장 허흥 프란치스코 신부)의 주관으로 제13회 교구 전례꽃꽂이 전시회가 열렸다. 본 행사는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라는 주제로 4년만에 재개되었으며, 전례꽃꽂이회와 본당 헌화회에서 35점을 출품하였다. 14일에 봉헌한 개막 미사에서 허흥 신부는 강론을 통해 “꽃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받음과 동시에 자유 그리고 평화와 여유로움을 받는다”고 전하였다. 또한 “형식과 격식이 필요하지만 작가의 개인적인 창의력에 의해 매주 전례에 맞게 주님 제단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 봉헌되는 거룩한 봉사”라고 독려했다.

교구 홍보기자 이경순 글로리아

교구 행사

노인대학 성경 봉사자 교리교육 종강



13일(월) 교구 북음화사목국 노인사목부(=부국장 황운상 베드로 신부)에서는 각 본당 노인대학 교사, 학생, 노인 신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올 해 첫 시행한 노인대학 성경 봉사자 교리교육 1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미사를 봉헌하였다. 본당 노인대학 봉사자를 중심으로 총 21명이 수강하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료하였다. 본 교육은 2022~2024년까지 연도별 2회씩, 총 6회로 구성되어 가톨릭 교회 교리 전반, 사회 교리, 가톨릭 교회 교리 주제별 심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학기 수료시 노인대학 교리교사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문화 안내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 참가 공모



〈cpbc 창작성가제〉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이들의 신앙 이야기와 가톨릭 성가의 풍요로움을 만날 수 있는 오디션! 음악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접수기간: 7/1(금)~20(수)
- 지원분야: 대상보컬, 창작곡, 보컬+창작곡
- 자세한 사항은 cpbc 홈페이지 <http://cpbc.co.kr> 참조
- ☎ 02-2270-2304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내용	인원	금액	혜택
1. 추모의 벽	1인당	1,000,000	한 달에 한 번
2. 기도의 벽			10년간 미사 봉헌
3. 후원 1구좌	1인당	500,000	-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본당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전례음악아카데미

지난 2년간 잠시 멈췄던 청소년 전례음악연수가 전례음악아카데미로 다시 시작합니다.

가톨릭문화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전례음악아카데미는 전례음악 전문가를 파견하여 청소년 전례음악 봉사자들이 전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례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미사 봉헌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2019년 전례음악연수 참가 후기

“밴드는 많은 악기와 사람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니 서로 협동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해 최고로 행복했어요. 밴드가 더 좋아졌고, 심장을 뛰게 해요.”

“평소 접하지 못하던 전문 선생님들께 악기별 레슨을 받을 수 있어서 아이들도 진지하게 연습에 임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전례음악 아카데미

신청기한: 7/5(화) - 선착순 10개 분당
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 <http://youth.caincheon.or.kr> 공문 확인
문의: 카카오톡채널(교구 청소년사목국) ☎ 032-765-6955



홈페이지 공문

교구 안내

복음화사목국 주관 ‘가정기도 신앙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자

은 상	연희동 성당 박광식 요셉, 상3동 성당 황보현 빈첸시아
동 상	역곡 성당 이승호 토마스아퀴나스, 만수2동 성당 유수진 가브리엘라, 상1동 성당 유만열 베드로
장려상	연희동 성당 고향숙 울리에따, 원미동 성당 이경희 말지나, 간석4동 성당 남정애 요셉피나, 원종2동 성당 이경숙 로사리아, 상1동 성당 최남영 베드로



- 이번 ‘가정기도 수기’의 심사 결과, 금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교구청 알림

◆ 교구 청소년사목국 정직원 모집

사업운영 1명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사제 추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마감: 6/29 ☎ 사무처 032-765-6961

◆ 22년 선교사학교 졸업생 일일 교육

때·곳: 7/2(토) 13:00~18:00 복자 이안나 홀
대상: 1~20기 선교사학교 졸업자
접수: 본당 사무실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선교사목부 팩스 제출
마감: 6/26 ☎ 032-762-9717

◆ 이주·해양사목부 30주년 감사 미사 및 전시회

때·곳: 7/10(주일) 10:30 답동 사회사목센터 4층 강당

◆ 522차 카나 혼인강좌

때·곳: 8/7(주일) 13:30~18:30 보니파시오 대강당
☎ 가정사목부 032-762-8888

◆ 제2회 창작생활 성가제 음원 접수

기간: 8/29(월)까지
대상: 교구 내 19~45세 청년
문의: 카카오톡채널[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교육 | 피정

◆ 예수회 센터 여름 특강

현장 및 동영상 강의(7월 개강)
이혼 신부: 사랑의 법, 영혼의 법-하느님의 사랑, 성사
주원준 박사: 구약성경 아카데미-구약성경 기초 입문
권오면 신부: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유성모 신부: 옥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전주희 수사: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손우배 신부: 옥화의 영성-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 02-3276-7733 / http://center.jesuits.kr

◆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 피정(무료)

때: 7/1(금) 18:00~2(토) 17:00
곳: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버스: 조치원역앞 신한은행 17:00
청주고속터미널앞 시내버스 정류장 17:20
지도사제: 윤창호 도미니코
☎ 010-4400-1344, 043-213-9103

◆ 젊은이 무료 피정

때·곳: 7/23(토) 9:00~16:30 소사 성분도 은혜의 집
인원: 40명(개인신청만 가능) ☎ 032-348-1910

◆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때: 8/4(목)~7(주일)
곳: 수리치골 성모성심의 집
32명(1인실) / 35만원 / 지도: 허성준 신부 외
☎ 한 린다 봉사자 010-8599-3127

◆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12:30~16:00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회장 010-5514-4077

◆ 예수수도회 7월 피정

청년주말피정: 7/9(토)~10(주일) 35세 미만 미혼여성
생활피정: 영신수련 [12주간] 45세 미만 미혼여성
☎ 010-2314-1645
2박 3일 침묵피정: 7/15(금)~17(주일)
☎ 010-9608-0208
곳: 메리워드 센터(서울 오류동)

미사 | 행사

◆ 故 효순·미선 20주기 기념 평화 미사

때·곳: 7/9(토) 9:00~16:00 주안역 출발
효순미선 평화공원-평화미사-임진각
☎ 정의평화위원회 032-765-6970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미사

때·곳: 6/27(월) 작전동 성당
12:30 찬미, 13:00 체나콜로 기도과 성시간,
14:00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메시지 책

◆ 청연 성당 후원 회원들을 위한 미사

음악치유팀 SOL과 함께하는
후원 회원들을 위한 미사
때: 7/2(토) 16:00
곳: 청연 성당(유류브드 함께)
☎ 032-832-2361

◆ 오순절 평화의마음을 후원회 인천 미사

때·곳: 7/1(금) 11:00 주안1동 성당
☎ 031-884-0533

◆ 평화의 바람 참가자 모집

독도&DMZ 국제 청년 평화순례
때·곳: 8/16~22 독도&경기/강원 DMZ 일대
평화에 관심 있는 20~30세 젊은이 60명
(내/외국인, 영어 가능자 우대)
참가비: 10만원 / 접수: 6/26까지 메일 접수
참조: http://caminjok.or.kr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2-753-0815

모집 | 일반

◆ 시각장애인 예비자 및 봉사자 모집

☎ 032-881-8281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 02-764-4741~3
www.holycac.or.kr

◆ 미사 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4부터 매주(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02-338-3793

◆ 꼬메스 심리상담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
가족, 부부, 갈등, 심리불안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 1회]
☎ 노경덕 신부 010-9916-5798

◆ 글라셋교수도회 심리 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부적응, 이주민 자녀 진로상담
곳: 부천시 심곡본동 608-7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 상담료: 1화~1만원
☎ 010-7794-6031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00~17:00

야간진료 (화) 18:00~20:30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 성안드레아 피정의 집 여름 프로그램

초·중·고·청년 위탁 CAMP 및 자체 모임(수영장 구비)
때: 7/18~8/21 ☎ 032-465-0835

◆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단기 1년 또는 장기)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 02-2258-8983 / oakinternational.co.kr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할인: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전화 필수)
☎ 031-360-7635, 010-7470-7966

◆ '다함께 성가'를 발송 교실

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답동 주교좌 성당 ☎ 010-9921-9364

순례 | 기타

◆ 국내 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일]: 7/11~13 [4일]: 7/4~7, 14~17
한국성지 167왕주 / 원주·춘천교구 [4일]: 7/18~21
☎ 정성훈 미카엘 010-8650-9690

◆ 아곱 전국 성지순례

안동·마산: 7/14~16 대구대교구: 9/23~24
원주·춘천: 10/14~15 제주교구: 10/25~28
☎ 010-3712-8119

◆ 대천해수욕장 요나 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 성당 연수원' 검색
https://yonaresort.modoo.at/
☎ 041-934-7758

성소모임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곳: 7/3(주일) 10:00 서울본부(동소문로)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때: 7/3(주일) 10:00
☎ 010-6312-1986

